

언어의 진화와 쇠퇴: 인공지능 시대의 다층적 패러다임

202127848 영어영문학과 김태리

I. 서론

언어는 인간의 사고와 의사소통의 핵심 요소로, 문화와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중대한 역할을 한다. 언어는 단순히 단어와 문법의 집합체가 아니라, 인간의 사고방식을 담고 있으며, 사회적 연결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도구이다. 그러나 기술의 발전과 사회적 변화는 언어의 변화를 가속화시키고 있으며, 이에 따라 언어 쇠퇴에 대한 논의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일부 학자들은 특정 언어의 소멸이나 언어 변화가 언어 본연의 기능을 위협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특히 소멸 위기에 처한 언어들이 문화적 다양성을 잃게 할 수 있음을 경고하며, 이는 곧 인간의 사고 영역을 축소시킬 가능성을 내포한다고 본다. 반면, 다른 학자들은 이러한 언어 변화가 단순한 쇠퇴가 아니라 인간이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고, 새로운 소통 방식을 창조하는 자연스러운 진화 과정이라고 본다. 이 관점에서 언어 변화는 단순한 상실이 아니라 혁신과 창조의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인공지능(AI)의 도입은 언어의 본질적 역할을 재정의하고 있다. AI는 번역과 통역, 자연어 처리 등의 분야에서 인간의 언어적 한계를 극복하며, 새로운 언어 패턴과 소통 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실시간 번역 기술은 언어 장벽을 제거함으로써 글로벌 소통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 발전은 인간 고유의 창의적 언어 사용과 감정 표현을 대체할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다. 미래 언어는 기술과 인간의 상호작용 속에서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먼저 언어 쇠퇴와 진화에 대한 두 가지 주요 관점을 소개하고, 각각의 근거를 바탕으로 분석할 것이다. 이어서 필자의 관점을 중심으로, 언어 쇠퇴와 변화가 인간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미래 언어의 모습에 대해 기술적 발전, 특히 인공지능(AI)의 도입을 중심으로 전망하고, 이러한 변화가 인간과 사회에 어떤 함의를 가질지 탐구하고자 한다.

II. 본론

1. 언어본능: 언어의 본질과 보존의 필요성

스티븐 핑커는 그의 저서 『언어 본능(The Language Instinct)』에서 인간의 언어 능력이 본능적으로 내재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언어가 문화적 산물 이상으로 인간의 사고와 밀접하게

연결된 진화적 적응임을 강조했다. 그는 언어가 단순히 학습된 기술이 아니라, 인간 두뇌가 자연스럽게 발달시키는 능력이라는 점을 논증한다. 핑커는 또한 언어가 진화 과정에서 인간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중요한 도구로서 작용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바탕으로 언어의 변화와 진화가 필연적임을 설명한다.

언어본능의 관점에서 언어는 단순히 의사소통의 도구를 넘어 인간의 선천적 능력과 깊이 연결된 기호 체계이다. 촘스키의 언어이론은 인간이 내재화된 문법 체계를 타고난다고 주장하며, 언어가 인간의 생물학적 본성의 일부임을 강조한다. 이는 언어가 개인의 학습 환경과 독립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시사한다. 조셉 그린버그는 30개 언어를 분석하여 언어의 보편적 요소를 발견하고, 다양한 언어가 서로 다른 체계를 가지면서도 공통적으로 주어와 목적어의 위치, 동사의 사용 등에서 일정한 규칙성을 보인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는 언어가 단순히 문화적 산물이 아니라 인류의 인지적, 생물학적 특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그러나 이러한 보편적 언어의 특성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언어학자들은 1만 년이 지나면 조상언어의 어떤 흔적도 후대 언어에 남아 있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현존하는 모든 언어의 가장 최근의 조상을 추적하여 잔존해 있는 흔적을 찾거나, 더 나아가 그 조상어가 약 20만 년 전에 살았던 최초 의 인간들이 사용했던 언어의 흔적을 보유하고 있으리라고 보는 것은 극히 의심스러운 일이다. 언어는 그것을 학습하는 아이들에 의해 이어진다. 언어학자들이 단지 성인들만 사용하는 언어를 본다면 그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음을 알게 된다. 이런 방식으로 추리하여 그들은 인류 역사에 드리워진 비극을 경고한다. 언어학자 마이클 크라우스는 현존하는 북미 인디언 언어의 약 80%인 150개 정도가 빈사상태에 있다고 추정한다. 다른 곳에 대해서도 그의 계산은 똑같이 비관적이다. 알래스카와 시베리아 북부에서 40개의 언어들, 중앙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에서 160개의 언어들, 러시아에서 45개의 언어들, 오스트레일리아에서 225개의 언어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볼 때 대략 3,000개의 언어들이 소멸해 가고 있다. 약 600개의 언어들만이 적정한 수의 화자들, 다시 말해 최소한 10 만 명 이상의 화자 들 덕에 상당히 안전한 상태이지만, 그럼에도 이 낙관적인 가정이 시사하는 바는 심각하다. 즉, 세계 전체 언어수의 90%에 달하는 3,000개에서 5,400개 사이의 언어가 다음 세기에 소멸할 위험에 처해 있다는 사실이다. 이로 인해 해당 언어에 담긴 전통, 문학, 시 등 고유한 문화적 가치가 사라지고 있다. 언어 소실은 특정 공동체의 정체성뿐만 아니라 인류 전체의 문화적 다양성을 약화시킨다. 이는 단순히 하나의 언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언어에 내재된 세계관과 철학, 감정 표현의 방식이 함께 소멸되는 것을 의미한다.

언어의 대규모 소멸은 현재 식물과 동물 종의 대규모 멸종을 상기시킨다. 원인들은 서로 중복되어 있다. 언어가 사라지는 이유는 화자들의 거주지 파괴와 더불어 계획적인 총족 말살, 강요된 동화, 동화교육, 인구통계학적 침몰, 그리고 크라우스가 문화적 신경독가스라고 명명한 전자 매체의 폭격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독창적인 언어 보존 노력; 교육 자료 개발, 문학과

미디어 콘텐츠 제작, 문법과 사전의 기록 및 보관을 통해 언어 소멸을 지연시키거나 막을 수 있다고 강조한다. 헤브라이어의 부활 사례는 이러한 노력이 실현 가능성을 보여준다. 우리가 지구상의 모든 종들을 보존할 수 없듯이 모든 언어를 보존할 수는 없으며, 어쩌면 그래서는 안 되는지도 모른다. 언어의 차이는 분열의 치명적 근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세대가 경제적·사회적 진보를 약속해 주는 주류의 언어로 귀의하기로 선택할 때, 예전의 언어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유로 어떤 외부 집단이 그것을 가로막을 권리를 가질 수 있겠는가? 그러나 복잡한 문제들은 별도로 하더라도 3,000개 남짓한 언어가 빈사상태에 있을 때 우리는 그 가운데 많은 언어가 소멸되어서는 안 되며, 또 그것을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확신한다. 결론적으로, 언어는 단순히 의사소통의 도구를 넘어 문화적 다양성과 인간 독창성의 상징이며, 그 소멸은 인류 문화와 지식의 중요한 부분을 잃는 비극으로 간주될 수 있다. 경제적, 사회적 이유로 주류 언어로 전환하는 추세는 더욱 가속화되지만, 모든 언어를 보존할 수는 없는 현실 속에서 복잡한 도덕적, 실제적 딜레마가 존재한다. 켄 헤일은 언어의 소실을 "세계가 겪고 있는 더 일반적인 다양성 소실의 일부분"이라고 표현했다. 이는 우리가 현재 직면한 문화적 보물의 상실 위험을 경고하며, 언어 보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운다.

2. 진화하는 언어: 자생적 관점에서의 언어, 쇠퇴가 아닌 변태

역사적으로 언어는 끊임없이 변화해 왔으며, 이는 언어가 생물학적 진화와 유사한 메커니즘을 통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고대 북유럽 언어는 현대의 덴마크어, 스웨덴어, 노르웨이어, 아이슬란드어 등으로 분화되었다. 이를 단순히 고대 언어의 쇠퇴로 보는 것은 잘못된 관점이다. 오히려 이는 기존의 패턴이 붕괴되면서 새로운 패턴이 창조되는 과정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현대 북유럽 언어는 의사소통이라는 언어의 역할을 너무도 완벽하게 잘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학계의 언어학자들은 언어의 쇠퇴를 경고하는 근대 이후의 우려 섞인 다양한 주장을 매우 회의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다. 언어의 역사는 기존 패턴의 붕괴와 새로운 패턴의 창조가 동시에 일어난다는 중요한 통찰을 보여준다. 언어는 '쇠퇴'가 아닌 '변태'의 지속적인 과정을 거친다.

이 과정에서 언어는 특정 집단의 문화적,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며 자생적으로 변화한다. 영어의 역사를 살펴보면 중세 영어에서 현대 영어로의 변화는 단순히 문법과 단어의 소멸이 아니라 새로운 표현과 구조를 탄생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 변화는 기성세대의 언어 규범이 무너지면서도 새로운 규칙이 형성되는 양상을 보여준다. 이러한 변화는 언어의 퇴보가 아니라 새로운 소통 방식과 문화적 패턴을 창출하는 창조적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언어는 쇠퇴하고 있는가? 영어, 프랑스어, 아이슬란드어, 중국어의 문법은 전례 없는 속도로 무너져 내리고 있는가? 만약 언어가 지닌 자기 조직화의 힘이 어떠한 진가를 발휘해 왔는지를 우리가 제대로 평가하지 않는다면, 언어의 변화를 무자비한 침식 과정으로 보는 것도 당연한

일일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사전 편찬자와 문법학자는 끊임없이 되풀이되는 통속어의 오염을 저지하는 핵심적인 방어벽과도 같다. 그들에게 언어 변화는 부주의함과 명백한 오류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언어를 오염시켜 쇠락하게 하는 힘에 가능한 한 단호하게 맞서야 한다. 그러나 언어의 복잡한 패턴이 자생적으로 질서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이러한 우려가 근거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언어는 끊임없이 변화한다. 즉 언어는 소리와 단어의 변화, 문법화를 비롯한 많은 요소가 수십, 수백 년 그리고 수천 년에 걸쳐 끊임없이 중첩된 결과물이다. 그러한 반복적인 축적과 쇄신의 결과, 언어는 질서정연하면서도 유쾌할 정도로 변덕스러운 뿐만 아니라 시, 법률, 과학 등 인간의 경험 전체를 아우르는 힘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어떤 세대건 화자 들은 언어가 조금만 변하는 조짐을 보여도 활기와 창조성의 징후가 아니라 언어적 퇴보, 심지어는 정신적, 사회적 쇠락의 전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실제로 문법화 과정은 세대 간 언어 전쟁과 비슷한 갈등을 일으키기도 한다. 특정 문법 패턴은 끊임 없이 바뀐다. 그러나 모든 인간 언어의 복잡성을 구성하는 규칙과 하위 규칙, 예외를 또한 늘 그렇듯 균형을 이룬다. 질서가 무너진다고 혼돈이 오지는 않는다. 대신에, 언어의 질서는 혼돈에서 나온다. 그래서 언어는 부분적으로 불완전하지만, 그로 인해 근사한 결과를 낳는다. 우리가 즉흥적으로 만들어내는 하나하나의 에피소드를 통해 집합적으로 창조한 언어는, 쉽게 배우고 만들고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을 전달하는 데 대단히 효과적이다.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적 표현 수단들은 과거 수백만 번의 상호작용 순간을 거치며 그때그때 당면한 즉각적인 필요를 충족시키는 과정에서 형성되어 왔다. 언어적 무정부 상태를 걱정하는 사람들은 언어가, 끊임없이 돌보지 않으면 무질서하게 자라 엉망이 되어버리는 정원, 혹은 지속적인 수리와 조정이 필요한 기계 부품과 같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언어는 자연계에서 발생하는 어떤 규칙적인 패턴에 비유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 확실한 것은 언어가 놀랍도록 복잡하게 설계된 살아있는 생명체들과 비슷하다는 사실이다.

언어의 복잡한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애매성, 열버무림, 재분석 등의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언어는 새로운 구조와 의미를 창출하며, 이는 언어가 단순히 보존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재창조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디지털 환경은 이러한 언어 변화의 가속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소셜 미디어와 같은 플랫폼에서는 새로운 단어나 줄임말, 이모티콘 등의 표현 방식이 지속적으로 생성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기존 언어 규칙을 파괴하면서도 새로운 의사소통의 가능성을 제공하며,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의 소통 방식을 형성한다. 소셜 미디어는 단순히 새로운 단어를 추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언어 사용의 맥락과 문화적 의미를 변화시키고 있다. 특정 해시태그나 밈(meme)은 짧은 단어와 이미지로 복잡한 메시지를 전달하며, 이는 전통적인 언어 표현 방식과는 다른 새로운 의사소통 패턴을 창출한다. 이러한 디지털 환경의 영향은 언어를 더욱 간결하고 즉각적으로 변화시키는 동시에, 그 안에 풍부한 의미와 창의성을 담아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기존 세대와 신세대 간의 언어적 격차를 확대하기도 한다. 새로운 디지털 표현 방식은 신세대에게는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기존 세대에게는 이해하기 어려운 복잡한 코드로 느껴질 수 있다. 이는 언어 변화가 단순히 새로운 표현의 추가가 아니라, 세대 간 의사소통 방식의 변화라는 점을 보여준다. 따라서 디지털 환경에서의 언어 변화는 언어의 진화 과정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며, 기존 언어 규범의 붕괴와 새로운 규칙의 형성을 동시에 목격하게 한다. 이러한 변화는 언어가 인간 사회의 변화와 요구에 끊임없이 적응하는 생명력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다음 섹션에서 논의할 필자의 견해를 제시하는 기초가 된다.

3. 언어 쇠퇴와 진화: 미래 언어와 새로운 창조의 관점

언어 쇠퇴와 진화는 언뜻 상반된 개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서로 긴밀히 연결된 현상으로, 각 관점은 특정한 초점을 가지고 있다. 우선, 언어 쇠퇴의 관점에서는 언어의 소멸이 주된 우려 사항이다. 스티븐 핑커와 마이클 크라우스가 언급했듯이, 많은 언어가 빠른 속도로 사라지고 있으며, 이는 그 언어에 담긴 독창적인 문화와 정체성이 소멸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크라우스는 세계 언어의 약 90%가 다음 세기에 소멸할 위험에 처해 있다고 경고하며, 이러한 소멸이 인류의 문화적 다양성과 정신적 유산을 약화시킨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북미 인디언 언어의 소멸은 단순히 의사소통 수단의 상실이 아니라, 그 언어에 내재된 세계관과 철학, 감정 표현 방식의 종말을 의미한다.

반면 진화하는 언어의 관점에서는 언어 변화가 필연적이고 창조적인 과정으로 여겨진다. 언어는 세대 간의 상호작용과 문화적 요구에 따라 끊임없이 적응하며 새로운 패턴을 만들어낸다. 고대 북유럽 언어가 현대의 여러 언어로 분화된 것처럼, 변화는 언어의 소멸이 아니라 생명력 있는 진화의 증거로 볼 수 있다. 디지털 환경과 소셜 미디어는 이러한 변화를 가속화하고 있다. 새로운 단어, 줄임말, 이모티콘 등이 기존의 언어 구조를 해체하면서도 동시에 새로운 의사소통 방식을 창출한다. 이러한 창조적 과정은 언어가 인간 사회와 문화의 변화에 적응하며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두 관점의 주요 차이는 '소멸'과 '변화'를 바라보는 방식에 있다. 쇠퇴의 관점은 언어의 소멸이 인간 문화와 지식 체계에 심각한 손실을 초래한다고 강조한다. 반면, 진화의 관점은 언어 변화가 새로운 창조와 적응의 과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갱신되는 것으로 본다. 소셜 미디어에서 생성된 새로운 표현 방식은 기존 언어 규범을 파괴하지만, 이를 통해 디지털 세대는 자신들만의 독특한 언어 문화를 형성한다. 이러한 변화는 언어의 쇠퇴가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창조로 해석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언어 쇠퇴와 진화는 양립할 수 없는 개념이 아니라, 언어의 생명력과 변화 가능성을 보여주는 두 측면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이해는 미래 언어의 방향성과 인간 사회의 변화 양상을 논의하는 데 중요한 기초가 된다.

미래 언어의 논의는 단순히 기술적 혁신의 결과로 나타나는 새로운 형태를 넘어, 현재 진행

중인 언어 변화와 진화의 연장선상에서 이해될 필요가 있다. 언어본능의 관점에서 보자면, 인간은 선천적으로 언어를 창조하고 적응하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 진화하는 언어의 관점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기성세대와 신세대 간의 충돌을 포함해 항상 새로운 창조적 패턴을 수반해 왔다. 그러나 오늘날 디지털 환경과 AI 기술의 발전은 이 과정을 더욱 가속화시키며, 미래 언어의 모습에 대해 논의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미래 언어는 기술과 인간의 창의성이 융합된 새로운 형태로 진화할 가능성이 크다. AI와 같은 첨단 기술은 번역, 자연어 처리 등에서 인간의 언어적 한계를 극복하는 데 기여하지만, 동시에 인간의 고유한 감정과 창의성을 대체할 수는 없다. 이러한 배경에서 미래 언어는 디지털 기술과 인간다움의 균형을 기반으로, 효율성과 감성 표현을 동시에 추구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것이다. 예를 들어, 실시간 번역 기술과 AI 기반 언어 모델은 언어 장벽을 허물지만, 인간 간의 진정한 대화와 공감을 대체하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미래 언어는 기술 발전을 수용하는 동시에 인간 고유의 언어적 창의성과 감정을 강화하는 새로운 창조의 장이 될 것이다.

4. 미래 언어의 전망: 기술과 언어의 융합

2022년 11월, 챗GPT의 등장 이후 우리 삶은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변했다. 현대인은 점점 말을 하지 않게 되었다. 신용카드와 스마트폰만으로도 전 세계 어디서든 살아갈 수 있는 시대다. 여행을 갈 때 여행 책자나 작은 외국어 회화책을 사는 일도 점차 줄어들었으며, 외국어 교재에서도 전화로 음식 주문하기는 시대에 뒤떨어진 주제가 되었다. 스마트폰을 통해 정보를 얻고 소통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현대인의 언어생활은 디지털 기기에 크게 의존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언어 사용을 줄이며 인간 간의 유대감을 약화시키는 동시에, 개인을 디지털 세계에 고립시키고 있다.

불과 지난 10여 년 동안 우리는 너무나 급격한 변화를 경험했고, 그 중심에는 스마트폰이 있었다. 특히 스마트폰은 언어생활에서 선택이 아닌 필수품이 되었다. 이렇게 기술이 급진적으로 발전하면서 전보다 더 많은 정보를 매우 빠르게 얻을 수 있게 되었지만, 사회는 유대감이 약화하고 개인은 디지털 세계에 고립되었다. 우리는 기술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것을 방치해서는 안 되며, 그 발전 방향을 소통과 연결 강화로 다시 설정해야 한다. 인공지능이 발전할 수록 우리는 오히려 우리의 언어를 사수하는 데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태블릿 pc 속에서만 아이들이 살게 해서는 안 된다. 미래 세대가 태블릿 pc 밖의 언어 세상을 충분히 확보하고 즐길 기회를 만들어줘야 한다. 지금 우리 세대에게는 언어를 보존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 미래 세대에게 우리의 언어를 전달해줘야 한다. 그러나 미래세대에게 우리의 언어를 강요하는 방식은 안 된다. 미래 세대의 표현력과 역동성을 이해하지 못하면 세대 간의 언어 분열과 단절은 더 심각해질 것이다. 그리고 언어 분열과 단절은 곧 관계의 단절로 이어질 것이고, 기성세대는 미래세대의 방해물로 남을 수밖에 없다.

다음 세대 아이들이 인공지능의 정보에만 의존한다면, 인간만의 창의력에 바탕을 둔 창작물이 아닌 인공지능의 창작 영역에 간혀버릴 위험에 빠질 수 있다. 인간의 창의력, 즉 인간다움은 기술 발전과 함께 더욱 보존해야 할 중요한 자산이 된다. 우리는 아이들이 다양한 세계를 경험하며 인간다움을 간직하고, 인간 고유의 창의력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인간과 인간 사이의 질 높은 언어의 주고받음이 지속될 수 있다. 우리의 언어를 미래 세대에 전달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바로 인간과 인간 사이의 대화이다. 대화에서 중요한 점은 일방적인 말하기가 아니다. 원활한 대화에는 많은 연습이 필요하다. 중요한 것은 말의 양보다도 질이며, 일방적 말하기가 아니라 대화하는 말하기라는 점이다.

미래 언어에서는 디지털 세상과 현실 세상의 균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AI는 언어 학습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인간의 상호작용과 감정적 연결을 대체할 수는 없다. 특히 어린아이의 언어 습득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부모나 양육자와의 상호작용이다. 이는 단순히 언어적 표현 이상의 사랑과 유대감을 전달하며, 인간 언어의 정수를 보존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사랑의 언어가 가능한 곳은 다름 아닌 가정이다. 아이들은 먼저 부모 혹은 양육자와 함께 정보나 감정을 주고받고 대화를 하면서 상호작용의 언어를 배워야 한다. 이것이 이뤄진 토대가 있어야 비로소 디지털 언어도, 새로운 언어 습득도 가능한 것이다.

언어는 인공지능이 가장 빠르게 진화하는 분야다. 특히 번역과 실시간 통역 능력이 뛰어나 번역과 통역의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일자리를 위협받고 있다. 카피라이터와 드라마작가, 영화 대본을 쓰는 사람들 모두 인공지능 작가들과 경쟁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인간만이 가능한 창작의 영역이라고 여겼던 글쓰기에서도 인공지능은 두각을 나타낸다. 이제 인간에게 고유한 언어라는 것이 가능할까? 인공지능과 인간의 말을 구분하는 것이 가능할까? 어린아이가 인공지능과 대화하며 말을 배울 수 있을까? 인공지능 번역기가 있는데 굳이 외국어를 배워야 할까? 우리는 새로운 질문에 맞닥뜨렸다.

인공지능은 인간이 하는 말과 글을 그대로 따라 하므로 인간과 비슷한 언어 구사 능력을 갖췄다. 이 능력은 나날이 발전 중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인간의 말과 인공지능의 말을 어떻게 구분해낼 수 있을까? 어쩌면 인간 말의 불완전성이 그 열쇠가 될 것이다. 인간은 말을 하며 실수를 하지만 인공지능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버벅 대기, 땀 들이기, 더듬거리기, 소리 지르거나 침묵하는 감정 표현, 음성의 높낮이 등을 인공지능이 완벽히 따라하기란 불가능할 것이다. 언어의 가장 중요한 기능으로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1) Efficiency, 2) Expressivity, 3) Empathy이 바로 그것이다.¹ 의사소통을 위한 목적적 언어는 이제 인공지능이 대신할 수 있겠지만 표현, 감정, 감각, 감동의 느낌을 인공지능이 전달할 수는 없을 것이다. 패턴화 하지 못하는 언어, 즉 감정, 감각, 공감이 결국 인간 언어의 중심에 설 것이고, 이 이유에서 인간의 번역이 필요하며, 다양한 인간의 언어가

¹ 조지은, 미래 언어가 온다(2024)

사라지지 않고 존재할 것이다. AI의 번역 능력은 언어 간 장벽을 허물지만, 다양한 언어를 모두 동일하게 만드는 것은 오히려 불가능할 수 있다. 전 세계가 하나의 언어를 사용했다면, AI가 언어를 완전히 지배하는 시대가 더 일찍 도래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현재 세계에는 무수히 많은 언어가 존재하며, 이는 AI의 언어 지배를 막는 방패 역할을 한다. 또한, AI가 기존 언어 패턴을 사용하며 새로운 언어를 만들어낼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현재까지 AI는 신조어나 새로운 단어를 창조하지 못했으며 인간이 만들어 놓은 기존 단어와 언어를 결합한 결과물만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AI와 인간 언어의 공존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될 것으로 보이며, 이 공존의 미래는 더욱 심도 깊게 탐구돼야 한다. 특히, AI가 언어 교육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

세대와 세대 간의 언어와 소통 방식에는 뚜렷한 차이가 존재한다. 언어는 시대와 함께 변화하며, 이 변화는 문화적, 기술적 발전에 따라 가속화되고 있다. 미래 사회의 주도권을 쥔 세대와 원활히 소통하기 위해, 우리는 이들이 사용하는 언어의 특징과 맥락을 이해해야 한다. 미래는 미래 언어를 소유한 사람들의 것이다. 이에 따라 미래 세대와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단순히 현재의 언어를 고수하는 것을 넘어 미래 언어를 이해하고 준비하는 통찰력이 필수적이다. 철학자 루트비히 비트겐슈타인은 <논리철학 논고>에서 "*언어의 한계는 우리 세계의 한계를 의미한다. The limits of my language mean the limits of my world.*"²라는 말을 남겼다. 이는 한 개인이 사용하는 언어의 크기가 곧 그 세계의 크기와 비례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언어의 가능성을 확장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사고와 소통의 세계를 열어가야 한다. 미래 세대 언어의 힘은 단어에 있다. 열린 생각으로 언어를 역동적으로 쓸 수 있는 사람이 미래 언어의 성패를 쥐게 된다. 흥미롭게도 인공지능은 무한대에 가까운 문장 생성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단어나 개념을 창조하지는 못한다. AI가 생성하는 언어는 인간이 이미 구축해 놓은 단어와 표현의 조합 결과물에 불과하다. 이 점에서 AI는 인간 창의력의 본질, 즉 마음을 움직이고 감동을 주는 스토리텔링을 완벽히 재현하지 못한다. 챗GPT와 같은 기술은 시와 소설을 작성할 수 있지만, 이러한 텍스트의 질적 깊이는 여전히 인간이 직접 창작한 작품에 미치지 못한다. 우리는 인공지능을 점점 더 많이 사용하게 되겠지만, 그럴수록 마음을 움직이는 인간의 스토리텔링의 힘을 더 높이 평가하게 될 것이다. 물론 인공지능은 인간의 스토리텔링 과정을 보완할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기존 도구와 자원을 활용할 새롭고 혁신적인 방법을 제시하여 인간이 새로운 차원의 창의성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20세기까지 언어학은 규칙 중심의 접근 방식을 취했다. 20세기 초반의 언어학자들은 언어 규칙의 표준화를 목표로 삼았으며, "모두 이렇게 말해야 한다"라는 방식의 언어 규범이 주된 연구 방향이었다. 촘스키의 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내재화된 문법 체계를 타고난 존재로, 이러한

² Wittgenstein, Ludwig. Tractatus Logico-Philosophicus. Routledge & Kegan Paul, 1922.

문법을 통해 처음 듣거나 본 문장도 순간순간 새롭게 만들어낼 수 있다. 이는 기계가 반드시 학습해야만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물론 인간이 구사하는 말이 항상 정확한 것은 아니다. 사실 우리의 말을 가장 인간다운 언어로 만들어주는 것은 정확성이 아닌 불규칙성 혹은 무질서, 실수들일 것이다. 언어에 존재하는 실수는 다양한 언어 가능성의 실현이기도 하다. 인간 언어는 끝없이 다양하다. 날마다 우리는 새로운 언어를 만들어낸다. 비단 쓰고 말하는 언어뿐만 아니라, 몸짓의 언어도 포함된다. 앞으로는 언어에 있어 개인차가 매우 중요하며, 이는 인간 언어를 인간답게 하는 요소가 될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 인공지능이 우리의 언어에 더 개입하면 개입할수록, 인공지능은 우리의 언어를 다듬으려고 할 것이다.

21세기에 규칙 중심의 언어에 대한 목소리가 사라지기 시작하는 배경에는 모든 언어에 맞는 규칙을 만들기 어렵다는 이유도 존재한다. 셀 수 없이 다양한 언어가 섞여 쓰이는 시대이기 때문이다. 지금도 틱톡, 인스타그램, X 같은 소셜 미디어 공간에서는 사회적인 약속이자 규범인 언어가 점점 사라지고, 개인들의 자유로운 언어가 살아남는다. 미래 언어에는 규범, 규칙, 표준에 얽매이지 않고 개인의 취향에 맞게 변형된 언어, 지극히 개인화된 언어가 주된 언어로 사용될 것이다. 챗GPT는 이제 글이 아닌 이미지로도 소통할 수 있다. 이미지를 보여주고 대화를 나눌 수 있다. 물론 오디오로도 대화도 가능하다. 이미지나 오디오를 프롬프트로 줄 수 있다. 이런 시대에 문법을 이야기하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 정제된 문법과 어휘로 이루어진 글을 읽고 쓰는 것은 미래의 언어생활에서 극히 일부분일 것이다. 언어에 대한 고정 관념을 깨고 열린 마음으로 언어를 대할 수 있는 사람들이 미래 언어를 받아들이고 미래 세대와의 소통에 능통해질 수 있을 것이다.

미래 세대에 휴머노이드가 등장하고 인공지능과 소통이 늘더라도, 기 술이 채워줄 수 없는 것이 바로 인간의 감성과 공감의 영역이다. 아무리 스크린 문해력, 디지털 문해력이 뛰어나도 다른 사람과 공감하며 대화하는 능력이 없다면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어렵다. 이때 대화에는 말 뿐만 아니라 행동, 표정, 몸짓 등 모든 게 포함된다. 이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대화를 통해 배울 수 있다. 특히 다른 사람에게 영감을 주고, 동기를 부여하는 진심이 담긴 대화는 인공지능과 나눌 수 없다. 인간의 언어생활에서는 말로 하는 의사소통 뿐만 아니라 몸짓, 표정 등 비언어적인 신호도 매우 중요하다. 우리의 감정과 관련된 메시지의 55%는 신체 언어, 특히 표정을 통해 전달된다고 하며 특히 인간 의 목소리가 가진 가치는 미래 언어의 숨은 핵심 요소가 될 수 있다.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한 변화는 이전 세기의 어느 때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빨랐지만, 2030년까지 혁신의 속도는 그를 더욱 초월할 것으로 보 인다.

기술적 특이점³이라는 말이 있다. 레이 커즈와일 Ray Kurzweil은 <특이점이 온다>라는 책에서

³ Kurzweil, Ray. *The Singularity Is Near: When Humans Transcend Biology*. Penguin, 2005

2045년경에 인공지능이 특이점에 도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술적 특이점이 현실이 된다면, 우리 인간이 맞이할 가장 큰 변화는 무엇보다 언어일 것이다. 인간은 더 이상 인공지능의 도움이나 간섭 없이 언어생활을 하기 어려워질 것이다. 실제로 이미 인공지능은 인간의 삶에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고,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도 인공지능이 다 아는 세상이다. 말하는 대신 QR 코드를 찍고, 인공지능이 탑재된 스마트폰이 대신 말해주고, 번역해주는 시대이다. 인공지능은 세상의 모든 지식을 그럴듯하게 엮어주며 설 새 없이 언어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러다가 인간이 언어를 잃어버리지는 않을까 걱정될 때도 있다. 만약 초인공지능이 등장한다면, 인공지능의 언어와 인간의 언어를 구분할 방법이 있을까? 미래에도 우리는 지금처럼 우리의 언어를 보존한 채로 소통할 수 있을까? 인간 언어는 영원히 지속 가능할까? 우리 언어의 미래는 도대체 어느 방향으로 가게 될까? 인공지능과 관련된 대부분의 기업들은 기술 개발의 목적이 인류의 행복에 있다고 강조하곤 한다. 실제로 디지털 기술은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주지만, 그 때문에 우리는 인간과 인간 간의 말을 잃어버리고 결국에는 불행해질 수도 있다. 인공지능과의 대화만으로는 영감을 주고 동기 부여를 하기 어렵다. 아무리 기술이 발달하더라도 현실 세계에서 인간과 인간의 대화가 필요한 이유이다. 기술이 폭발적으로 발전하는 이 시기에 아이들과 더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미래 세대에게 인간 대 인간 대화의 즐거움과 중요성을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

앞으로 인간 언어의 핵심은 인공지능으로 번역되지 않는 감성과 감정의 언어가 될 것이다. 미래 세대가 감성과 감정의 언어를 익힐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하는 이유가 이 때문이다. 인공지능의 언어가 아직 인간 언어에 가장 근접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바로 언어의 감정적인 부분이다. 아직 인공지능이 인간 언어의 무한한 감정들을 이해하는 데는 많은 한계가 있다. 앞으로 인공지능 언어의 성패는 감정 언어를 이해하는 것이 될 것이고, 감정을 정복해야만 인간이 인공지능과의 대화에 공감과 이해를 하고 서로 신뢰의 관계를 쌓을 수 있을 것이다.⁴ 그리고 언젠가 이 시기가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사실은 피할 수 없다. 인공지능이 감정을 갖게 되는 일은 다소 두려운 느낌을 주기도 하지만, 감정을 정복한 인공지능 기술을 제대로 활용한다면 사회에서 소외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사람들에게 정말 중요한 말들, 영혼을 풍부하게 하는 말들은 인공지능이 가르쳐주지 않는다. 미래 언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과 인간 사이의 대화가 될 것이다.

III. 결론

언어는 단순히 의사소통의 도구가 아니라 인간의 정체성과 문화를 담아내는 중요한 그릇이다. 언어의 쇠퇴와 창조, 그리고 진화의 양면성을 탐구하면서 나는 인간 언어의 본질이 단순한

⁴ Sundar, S. Shyam, and Jin Kang. "Emotional Interaction in Human-Computer Communication." *Human-Computer Interaction Journal*, vol. 30, no. 2, 2015, pp. 102-118.

형태적 변화가 아닌 인간성의 근원적인 부분임을 깨닫게 되었다. 언어는 단순히 변하거나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인간의 적응력과 창의성을 반영하며 새로운 모습으로 재탄생한다. 그러나 기술의 급격한 발전, 특히 인공지능의 부상은 인간 언어와 소통 방식의 변화를 이전보다 더 빠르고 강력하게 몰아붙이고 있다.

AI는 언어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극대화하는 데 기여하며 전 세계를 연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실시간 번역과 자연어 처리는 언어 장벽을 허물며 새로운 소통의 가능성을 열었다. 그러나 AI는 인간 언어의 감정적이고 공감적인 요소를 완벽히 대체하지 못한다. 언어의 진정한 힘은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나누고, 마음을 움직이며, 공감의 다리를 놓는 데 있다. 이 부분은 기술이 채울 수 없는 인간 언어의 고유한 영역이다.

나는 이러한 관점을 통해 언어의 쇠퇴와 창조를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되었다. 언어의 쇠퇴라는 현상은 인간이 가진 언어적 다양성과 문화적 유산이 사라진다는 점에서 분명 경계해야 할 문제이다. 그러나 동시에, 언어는 변화하고 적응하며 새로운 형태로 재창조되는 과정을 통해 진화한다. 디지털 환경과 AI 기술은 언어 변화를 가속화시키는 촉매제이지만, 그것이 인간 언어의 생명력을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다. 오히려 AI와 같은 기술은 인간 언어의 복잡성과 감정적인 면을 더 부각시키고, 우리가 인간 언어의 본질에 대해 다시 한번 성찰하게 만든다.

미래 언어는 인간성과 기술의 융합 속에서 진화할 것이다. 기술의 발전이 인간 언어를 효율적으로 만드는 데 기여할 수는 있지만, 언어의 감정적이고 창의적인 측면은 여전히 인간의 몫으로 남아 있을 것이다. 특히, 언어의 감정적 요소는 인공지능이 따라 할 수 없는 인간 언어의 본질이자 핵심이다. 이는 인간이 단순히 정보를 주고받는 존재를 넘어, 서로 공감하고 연결되며 감동을 나누는 존재임을 보여준다. 우리는 지금 인간 언어와 AI의 언어가 공존해야 하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AI가 언어의 구조적 측면을 강화하고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데 기여하는 동안, 우리는 인간 언어의 감정적이고 창조적인 측면을 지켜야 한다. 이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인간 언어는 단순히 기술의 도구로 전락하지 않고, 인간다움을 담아내는 매개체로 발전해야 한다.

미래 언어의 중심은 인간의 창의성과 기술의 발전이 만나는 지점에서 발견될 것이다. 기술적 특이점이 다가오는 시점에서 인간 언어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도전은 언어를 더 깊이 이해하고, 기술을 활용해 인간의 언어적 가치를 강화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언어는 계속해서 변화하고 진화할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 언어가 지닌 감성과 공감의 본질을 잃지 않는 것이다. 결국, 언어의 진화는 기술적 도구의 진보가 아니라 인간이 타인과 연결되고 자신의 세계를 확장하는 데 어떤 도구를 선택하고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달려 있다. 미래 언어는 우리가 선택하고 만들어가는 것이다. 이는 인간 언어가 단순한 쇠퇴와 소멸의 이야기가 아니라, 새로운 창조와 가능성의 이야기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언어의 변화는 우리에게 도전이지만, 동시에 우리 인간성의 본질을 재확인하는 기회이기도 하다.